

영남지역 석불 조성의 1인자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 조각승 승호(勝湖)

17세기 후반에 호남에서 활동한 색난 스님과 쌍벽을 이루는 영남에 거주한 조각승은 승호(勝湖, 勝浩)스님이다. 승호 스님은 색난 스님과 달리 경주에서 산출되는 불석(佛石)으로 석불을 제작하였다. 불석은 일명 경주석(慶州石)이라고 부르는 돌로, 수분을 먹으면 조각도로 조각할 수 있지만, 수분이 없어지면 아주 단단한 특징을 가진다. 흔히 노스님들이 석고로 만든 불상이 전각에 불안되어 있다면 대부분 불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승호 스님이 만든 석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10여 건 100여 점에 이른다.

아직 승호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조각승(彫刻僧)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사찰 연혁을 적은 사적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 지역, 조각승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승호 스님은 1640년에 수화승(首畫僧, 화승의 우두머리) 청허 스님이 만든 경남 거창 덕유산 연수사 목조아미타불좌상(거창포교원 봉안) 제작에 보조 작가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님은 1655년에 도우 스님과 경북 칠곡 송림사 배전 불상을 만들 때, 부화승으로 참여하여 1660년대부터 불상 제작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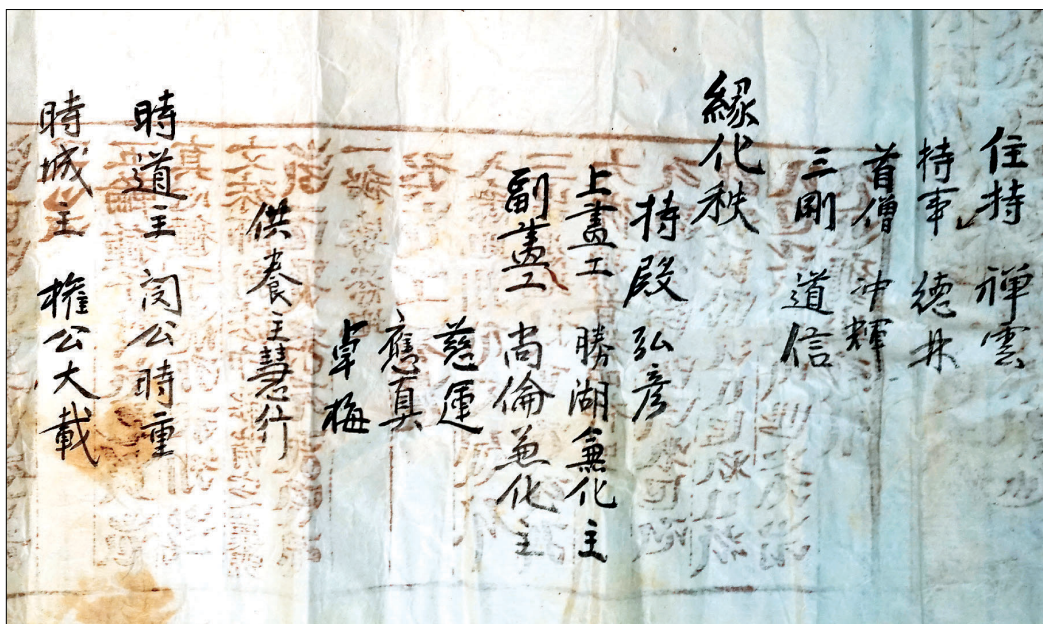
승호 스님은 최근 조사된 1670년에 대구 근방 사찰에 봉안되었던 석조보살좌상(서울 도선사 봉안)에 화주와 작가로 참여하여 이 지역에 고향이거나 출가한 사찰일 가능성이 밝혀졌다. 또한 1670년에 명준 스님 등이 만든 경북 양산 통도사 백련암 관음보살좌상 제작에 증명(證明)으로 참여하여 백련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후 승호 스님은 1678년에 청도 화악산 천주사 영산전과 명부전 불상(청도 덕사 봉안), 1681년에 경남 창원 성주사 지장전 불상, 1682년에 양산 신희사 불상, 1684년에 부산 기장 장안사 영산전과 명부전 불상, 1685년 경북 청송 대전사 보광전 불상, 1688년에 경북 군위 인각사 영산전 불상을 만들었다.

또한 승호 스님은 1668년에 경주 기림사 대웅전에 올린 기와 제작에 시주하고, 1719년에 기림사 대웅전 비로자나불 중수와 도금에 시주자로 참여했고, 이 시기에 입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기림사 대웅전 비로자나불 중수 발원문에 “비구 승호 영가(比丘 勝湖 靈駕)”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승호 스님은 1717년에서 1719년 사이에 입적했다. 불가(佛家)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 뒤에 영가(靈駕)를 쓰는 것은 통상 3년 탈상 전까지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승호 스님은 1620년대 출생하여 승려가 된 후, 1640년대 불상 제작의 수련기를 거치고, 1650년대 부화승으로 활동하다가 1670년대 수화승으로 영남 지역의 여러 사찰 영산전



17세기 후반 조각승 승호 스님의 대표작 청도 덕사 석조석가여래좌상. 경주에서 나오는 불석으로 만든 석조불상은 옷 주름이 각이 지고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서울 도선사 봉안 석조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내 조각승들. 불상 조성을 담당했던 스님으로 승호 스님이 기록돼 있다.

17세기 후반 불교조각사 거두

호남 활동한 색난 스님과 쌍벽

목불 아닌 佛石으로 불상 조성

문헌 통해 활동 시기·지역 가능

경주 기림사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국 걸쳐 석불 수백점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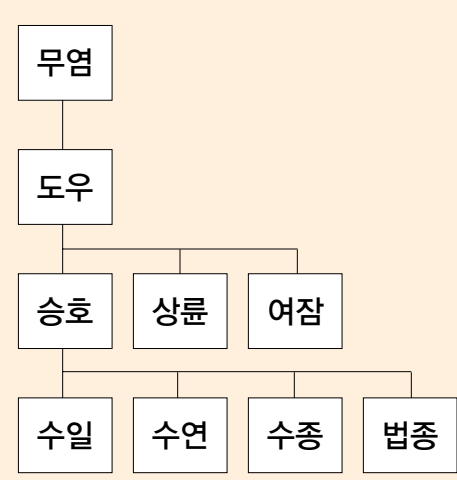
기림사·수도사 시주자 참여도

과 명부전에 석조불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경주 기림사에 승호와 관련된 몇 가지 문헌기록이 많이 남아있어 거주 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석조불상 중에 경주 합월산 골굴암에서 채굴된 석재로 기림사에서 제작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승호 스님이 1717년에서 1719년 사이에 돌아가서 대략 90세까지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색난 스님과 같이 영남 지역의 많은 사찰에 명부전이나 영산전에 봉안될 불상을 주로 조성하였는데, 이는 주전각인 대웅전에 불상들이 승호 스님이 활동하기 이전에 대부분 봉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님은 불상을 제작한 후에 받은 수입으로 자신과 관련이 깊은 경주 기림사, 영천 수도사 등의 불화와 기와 제작에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승호 스님에게 불상 제작을 가르쳐 준 스님은 청허(淸虛) 스님과 도우(道叟) 스님으로 추정되는데, 이 스님들은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현진(玄眞) 스님과 무염(無染) 스님의 계보를 이은 조각승이다. 이 가운데 승호 스님이 만든 불상은 청허

〈표〉 승호스님 계보의 조각승



스님보다 도우 스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승호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도우(1633~1664)→승호(1640~1719경)·상륜(1657~1688)·여잠(1678~1688)→수일(1675~1730)·수연(1681~1709)·수중(1684~1685)·법종(1684~1730) 등으로 이어진다.

승호 스님은 1680년대에 활동한 호남의 색난 스님, 경북의 단웅 스님, 충북과 경기의 금문 스님과 달리 석조불상을 만들면서 조형 감각이 다른 불상을 제작하였다.

승호 스님의 대표 작품은 청도 덕사 영산보전에 봉안된 석조석가여래좌상으로, 높이가 92.7cm, 무릎 폭이 59cm로 조선 후기 제작된 중형불상이다. 석조불상은 약간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숙인 머리는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육계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방형의 각진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콧날이 뾰족한 원통

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오른손은 축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大衣)는 목조석가불과 마찬가지로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지 않은 변형통견으로, 오른쪽 어깨에 대의 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V자형을 이루고 있다. 나머지 대의 자락은 세 가닥으로 접혀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 자락은 중앙에 수직으로 늘어선 옷자락의 끝부분이 옷깃같이 접힌 형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이 만든 불상과 다른 요소이다. 불상의 뒷모습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에 짧게 늘어져 있고, 가슴에 묶은 승각기는 상단에 5개의 양련형(仰蓮形) 주름이 접혀 있다.

본존 옆에 봉안된 보살상은 조성발원문에 미륵과 제화갈라로 언급되어 있다. 보살상은 미륵이 높이가 76.5cm이고, 제화갈라가 높이가 82.5cm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살상은 연화당초문(蓮花唐草文)이 촘촘히 양각된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밑으로 짧고 단정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으며, 귀 앞에 늘어진 머리카락이 귀의 중간을 가로 질러 뒤쪽으로 넘어가 꼬여서 어깨에서 등글게 말린 후에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착의법은 오른쪽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어 배에서 대의 자락과 접힌 부분이 표현되고,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옷자락의 형태가 본존과 약간 차이가 있다. 제화갈라 보살의 오른손은 축지인하고, 왼손 바닥은 위로 엄지와 중지를 붙인 반면 미륵보살은 손의 위치가 반대로 놓여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영산보전에 석가여래좌상과 같이 봉안된 승호 스님이 만든 나한상의 크기는 58~66cm로, 결가부좌(結跏趺坐)나 율왕좌(輪王坐)의 자세를 하고, 상서로운 동물이나 염주 등의 지물을 들고 있다.

얼굴의 형태는 장방형으로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고, 원통형의 코, 어깨까지 내려온 귀, 살짝 미소 짓는 입 등이 본존이나 보살상과 같다. 다만 나한상의 착의는 장삼 위에 가사로 왼쪽 어깨를 덮은 모습은 같지만, 장삼 안쪽에 두 겹으로 입은 내의 표현, 왼쪽 어깨부분에 가사 매듭에 금구(金具) 장식, 그 아래 늘어진 끝자락이 연잎이 엮어진 형태의 끝자락 표현 등이 특이하다.

승호와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대구 동화사 영산전, 달성 용연사 영산전, 달성 북지장사 대웅전(협시보살), 청도 대비사 대웅전, 청도 용천사 나한전과 운문사 응진전, 경주 불국사 나한전, 경산 환성사 명부전, 부산 육주사(통도사 성보박물관 봉안), 의령 수도사 극락전, 창원 성주사 영산전, 영천 부귀사 극락전 등 영남의 많은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 이들 석조 불상들은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대의 처리 등에서 승호스님이 활발하게 불상을 만든 1680년~17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찰고급연등·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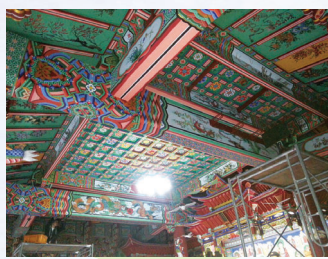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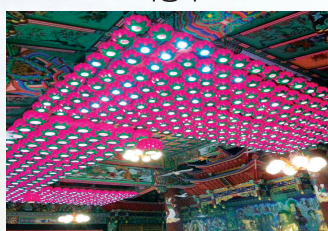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하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 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갈이 · 연꽃차갈이/광명등연꽃차갈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일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 령 인 예 의 품 목

*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 황금등 : 8cm

*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